

20C 과학기술과 아방가르드 예술운동

이광석

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학과

20세기 예술-과학기술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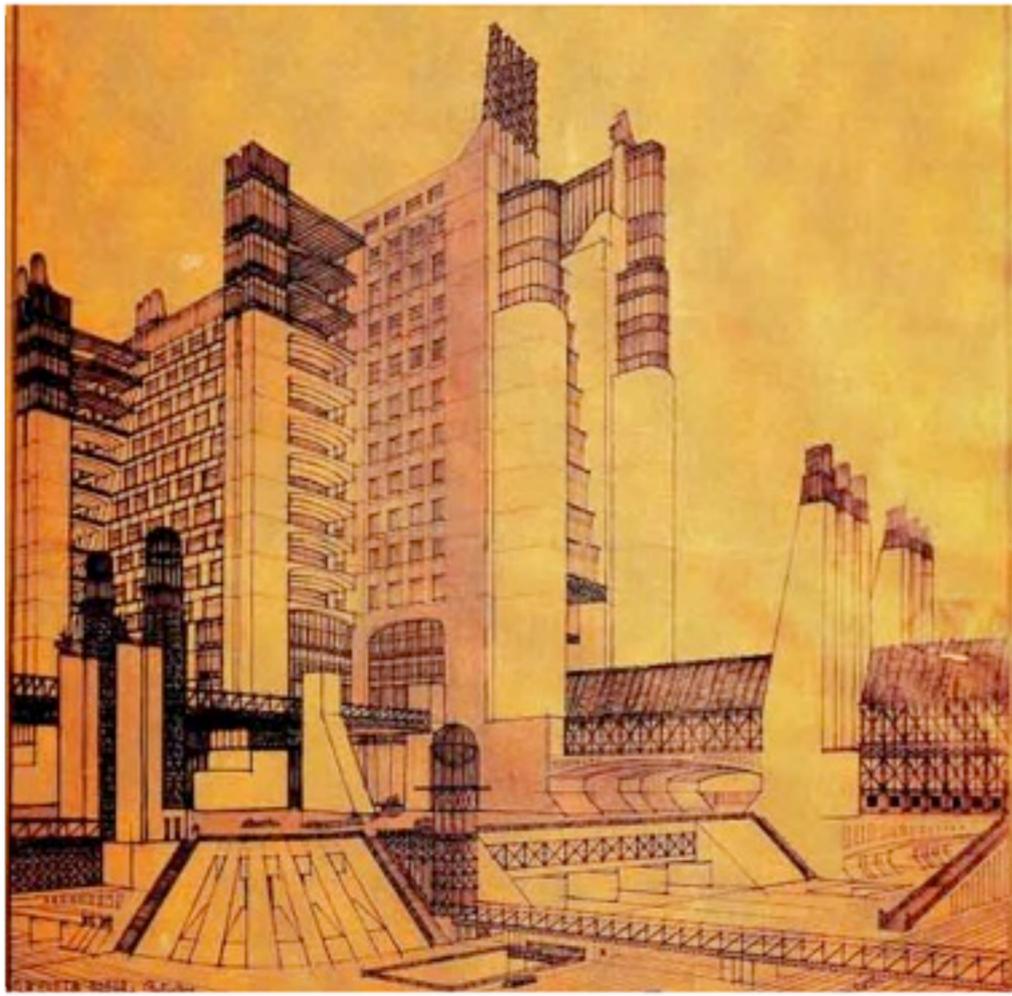
- ◆ 기본 전제: 진보와 생산력으로서 (중립적) 과학 기술
- ◆ 자본주의 체제와 과학기술: 소비주의와 풍요, 그리고 허위적 욕구와 문화조작
- ◆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예술 장르와 표현 확장, 향유의 민주화



20C 과학기술과 아방가르

- “기술복제시대의 예술” _ 사진 혁명
- ‘아우라’(aura)의 상실 _ 예술의 대중화
- 정치의 예술화 (파시즘화)
- 예술의 정치화 (아방가르드적 개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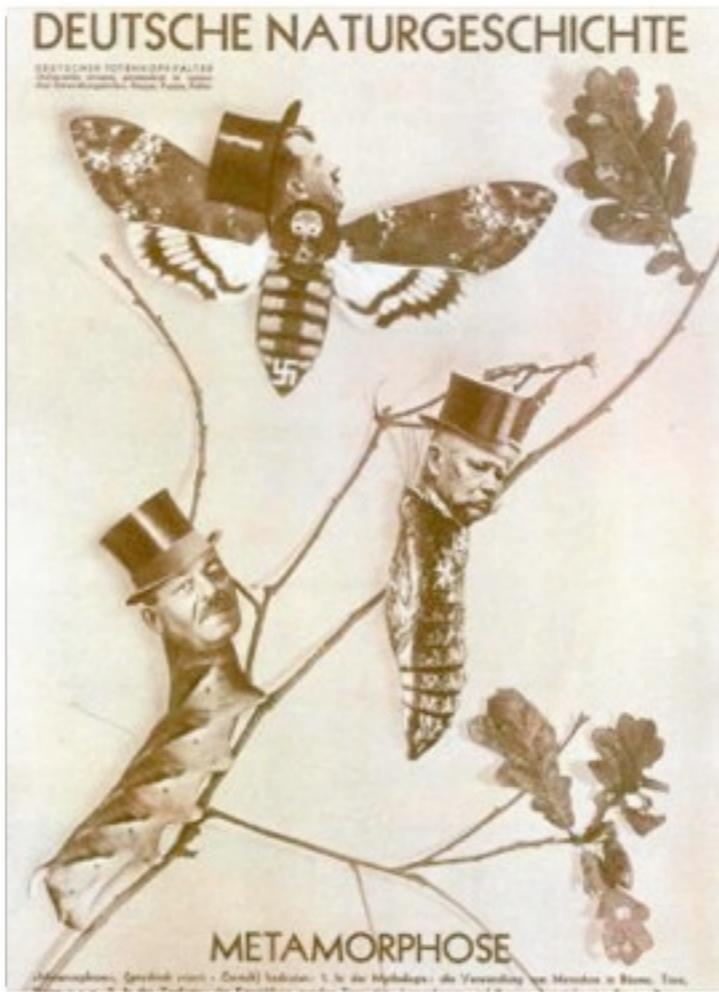




미래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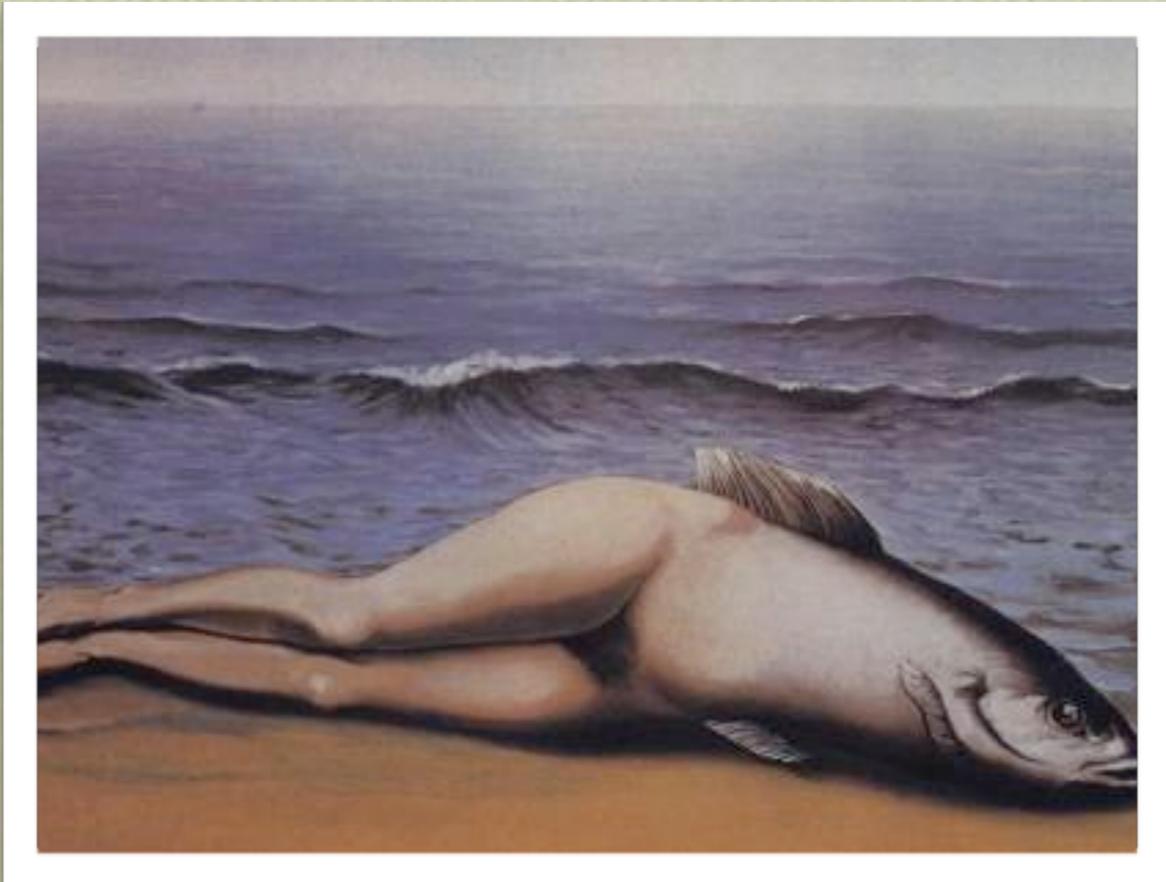


다다이즘





슈레알리즘



스펙터클 + 대중



□ 출현 배경

- ◆ 러시아 혁명의 유럽 전이 멈춤
- ◆ 오락산업의 융성
- ◆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전
- ◆ 전체주의(파시즘) 정권에 의한 문화조작

상황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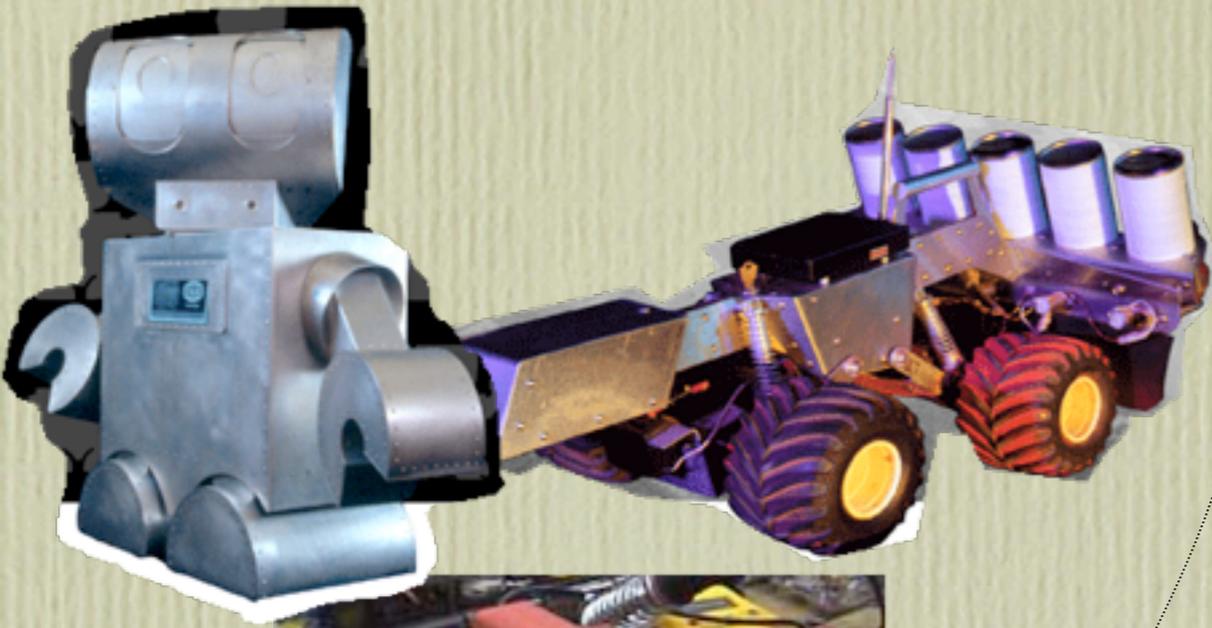


20c 아방가르드의 특징

- 유탘주의의 극복 (사회-예술)
- 현실 비판과 합리적 이성과 계몽 부정
- 새로운 매체와 플랫폼 적극 수용
- 관객의 역할과 주체성 강조
- 모두가 예술가, 더 이상 예술가는 없다 (반미술)
- ‘역사적’ 아방가르드 - 시장에 의한 포획과 계량화



21세기 아방가르드의 후예들



REVERSE ENGINEERING



CULTURAL JAMMING

GENETIC ENGINEERING



FREE CULTURE